

<2020년 7월 6일 월요일 새벽, 주 말씀>

1. 우리가 행하면 하나님도 성령님도 주도 행하신다.
2. 못 느끼면, 보람이 없다.
3. 은혜의 주관권에 있을 때는 귀한 것을 못 느낀다. 그 주관권을 벗어나면 느낀다.
4. 물도 마실 때는 귀한 것을 못 느끼고, 없으면 그때 귀한 것을 느낀다.
5. 있을 때는 귀한 것을 못 느낀다. 없을 때 아쉬운 것도 귀한 것도 느끼고, 깨닫게 된다. 하나님과 성령님에 대해서도 그러하다.
6. 있을 때 느끼고, 좋아하고, 기뻐하고, 사랑하며 살아라.
7. 있을 때 좋아하는 신앙이 ‘깊은 신앙’이다.
8. 사명자가 자기 사명에 해당되는 일을 안 하고 딴 짓을 하면, 괴롭게 하여 잘못된 것을 깨닫게 하신다.
9. 무더운 여름철 굴 안에 처음 들어갔을 때는 시원함을 느끼지만, 오래 있으면 굴 안이 밖보다 시원한 것을 못 느낀다. 그러다 굴에서 나오면 그제야 굴 안이 얼마나 시원했는지 깨닫게 된다. ‘사람의 마음과 정신과 생각’도 그러하다.

10. 건강할 때는 건강하게 해 준 것이 얼마나 귀한지 모른다. 그러다 아프면, 그제야 건강함이 얼마나 좋은지 알게 된다.
11. 월명동을 사용할 때도 처음에는 좋은 것을 잘 느끼다가, 점점 못 느끼게 된다. 그러다 코로나로 인해 사용하지 못하니, 하나님의 전이 얼마나 귀하고, 유익하고, 좋은지 깨닫는다. 귀하게 여긴 선생만 늘 사용하고 있다.
12. 돈도 쓸 때는 좋은 것을 모른다. 돈이 떨어져야 안다.
13. 아무리 좋은 집도 쓸 때는 좋은 것을 모른다. 없어 봐야 안다. 하나님과 성령님에 대해서도 그러하다.
14. 가지고 있어도 안 쓰면, 귀한 것을 못 느낀다.
15. 차원을 높이지 않으면, 항상 그 자리다.
16. 사람은 자기 취향대로 좋아한다. 하나님과 성령님의 취향대로 좋아해라.
17. 어떤 자는 장단점 중에서 단점을 좋아하고, 어떤 자는 장점을 좋아한다. 단점을 좋아하는 이유는 현재에는 단점이지만, 개발해 놓으면 장점이 되기 때문이다.
18. 지혜자는 길의 앞날까지 생각하고 택한다.

19. 배워야, 분별한다.

* 월요일 새벽에 추가로 써 주신 잠언

20. 하나님과 성령님이 자기를 위해 행하시는 것을 아는 대로 은혜와 복이다.

21. 복을 받아도 자기가 수고함으로 얻었다고 하면, 보람도 기쁨도 자기 선에서 끝난다.

22. 하나님과 성령님과 주가 주시면 사랑하여 주셨으니 ‘사랑의 역사’가 일어나고, ‘같이 사랑하며 사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주신 것이 얼마나 크고 영원한지를 알아라.

23.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사 온 인류가 자신의 것이기 때문에 살피고 돕고 관리하신다. 사람뿐 아니라 만물들도 하나하나 살피고 도우신다.

24. 나무나 돌들이 사람들이 귀하게 보고 돕는 것을 모르듯이, 사람들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돕고 사랑해 주시는 것을 모른다. 지능이 발달할수록 한 차원 높은 짐승들은 자기를 돕고 사랑하는 것을 안다. 사람들도 하나님 앞에 그러하다.

25. 사람들끼리도 지능이나 깨달음에 둔한 자일수록 자기를 돕고 사랑하는 것을 모른다. 생각이 높고, 지혜 있는 자일수록 자기를

돕고 사랑하는 것을 안다. 하나님과 우리 인생들과도 그러하다.

26. 하나님은 하나님을 깨닫지 못하는 자들은 짐승과 같다고 하셨으니, 짐승들은 하나님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이다.